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연구소 제35차 콜로кви움

1.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15-18시
2.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37-2동 504호
3. 주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서양고전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4. 강연제목 및 강연자

제1강연 서사시로부터 서정시로: "정신의 발견"은 아르킬로코스의 유산인가?
김준서 박사 (서울대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제2강연 카툴루스의 시에서 여행과 제국
차중호 박사 (서울대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5. 강연 소개글

제1강연 서사시로부터 서정시로: "정신의 발견"은 아르킬로코스의 유산인가?

김준서 박사

브루노 스텔과 헤르만 프랭켈로 대표되는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고전학자들은 상고기 그리스 서정시가 서사시의 몰락 이후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메로스 서사시가 보여주는 불멸의 명성과 탁월함, 명예에 대한 집착이 서정시 등장 이전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면, 개인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폴리스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가치'를 조명하는 서정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한(혹은 발전한) 가치관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상고기 그리스 시문학에 대한 이러한 도식은 이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현재까지도 이들이 제시한 프레임은 서정시 해석에 있어 유효성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시문학 장르가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온전하게 반영한다는 전제는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호메로스 서사시라는 대단원에 맞춰 인간 정신의 진보를 보여주는 온갖 형식의 서정시들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주장이 상고기 그리스의 시문학적 풍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일까? 이 글에서는 상고기 그리스 시문학에 대한 연대기적 도식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고, 서사시와 서정시 두 장르의 유연함과 역동성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제 2강연 카툴루스의 시에서 여행과 제국

차중호 박사

카툴루스의 시는 레스비아로 지칭되는 여성을 소재로 한 사랑시에서 로마 엘리트 남성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룬 시들, 그리고 카이사르와 같은 당대의 유력자들의 탐욕과 부패를 꾸짖는 비난시, 거기에 더하여 신화적 소재를 활용하는 소서사시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 발표에서는 여행과 제국의 주제가 다양한 카툴루스의 시적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성격을 지닌 카툴루스의 시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독해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정복 활동에 따른 제국의 지리적 확장은 로마 엘리트에게 이방의 다양한 문물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제국의 변경으로 떠나도록 호기심을 자극했다. 카툴루스의 시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소재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 소재들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시들을 논의하면서 이 발표는 공화정 말기의 제국이 제공하는 로마 엘리트의 경험이 카툴루스의 시에서 다루어지는 방랑과 귀향, 도덕성의 후퇴, 정체성의 혼돈과 같은 문제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일 것이다.